

‘슬기로운 분산’ 광주·전남, 병상 나눔으로 위기 돌파

위중환자 광주·경증환자는 전남...나주 ‘생활치료센터’ 운영
공동 확보 병원·시설 총 89곳...당분간 병상 확보 문제 없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부족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시·도간 ‘병상 나눔’으로 코로나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광주시와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구축, 환자 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분산 배치로 위중증 환자의 부족한 병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두 시도는 ‘병상 나눔’을 통해 위·중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춘 광주의 전문병원으로,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전남의 공공의료원 등 전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경증환자 치료시설이 없는 광주와 위·중증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전남이 협치를 통해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남도와 광주시가 ‘병상 나눔’을 통해 공동으로 확보한 치료병원 및 시설은 8곳으로, 총 42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37명이다. 이 중 209명이 음압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병원과 의료원을 비롯한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설별로 국가 지정병원은 전남대·조선대·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으로, 22병상을 확보했다. 현재 환자 15명을 치료중으로 7명을 더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건강이 호전되거나 악화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전담병원으로 옮겨 여유병상을 10개까지 확보, 위중환자 발생시 긴급히 대처함으로써 지역민 불안감을 덜어줄 방침이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은 89명이 입원할 수 있다. 현재 50명이 입원해 39병상이 남아있다.

경증환자가 입원한 전담병원인 순천과강진 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 3곳으로 230명을 치료할 수 있다.

현재 127명이 입원해 103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돌보줄 생활치

료센터는 나주 소재 한전KPS 인재개발원 1곳으로 83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17명이 입소해, 66명을 더 받을 수 있다.

한전KPS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했다. 인근 나주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운영, 병상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협치로 당분간 병상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공동 생활권으로,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주시청 방역상황실에 매일 직원을 파견해 확진자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치료 병상 역시 상대적으로 전문병원이 많은 광주와 공공의료원 등

전담병원이 많은 전남이 유기적인 ‘병상 나눔’ 체계를 갖춰 서로 부족한 병상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체계를 계기로 앞으로도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과제를 발굴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생활치료센터와 관련 “나주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소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해 시민과 확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대구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환자 30명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김정환기자

“후각·미각 저하, 설사” 혹시 코로나?...속단 말고 검사해야

여름감기 오인 뒤늦게 코로나 확진
일상생활하며 지인 추가 감염 발생

“발열, 인후통, 후각·미각 저하,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여름감기로 오인하고 생활을 하다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지역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감기 증상은 물론 후각이나 미각 저하, 두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속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60~70대 확진자가 여름감기로 오인한 채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들은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자 여름감기로 오인해 동네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1주일 가량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증상이 있기 전후 지인들과 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했으며 마트, 식당,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했다.

또 다른 70대 확진자도 확진판정을 받기 8일 전부터 증상을 보였으나 여름감기로 오인

한 채 동네병원을 두 차례나 방문해 처방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기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한 탓에 두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상생활 중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식사를 하면서 벗은 탓에 지인들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열이나 인후통 등 고전적인 감기 증상부터 후각·미각 저하, 설사 등 평소와 건강상태가 다를 경우 속단하지 말고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 동네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의사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묻고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외래환자 중 후각·미각 저하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일부 확진자들이 이상 증세를 여름감기로 오인하면서 일주일 이상 생활하는 바람에 코로나19 확진이 늦어졌고, 추가 감염까지 발생했다”며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버스정류장 방역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치방역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감염원도 모른다’ 광주, 지역사회 n차 전파 가속

‘미상’ 확진자발 n차 감염사례 속출... ‘조용한 전파’ 우려 현실화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n차 전파가 잇따르면서 누적 환자가 388명으로 늘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이다. 이들은 379~388번 환자

로 분류돼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복구에 사는 383·387·388번 확진자는 모두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성림침례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뒤 증상이 나타났다. 격리 이후 이동 동선과 접촉자

는 없다. 나머지 7명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기존 확진자를 통한 2~3차 전파자이거나 바이러스 노출 경위를 알 수 없다.

‘감염원 미상’ 환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힘을 모아 추가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또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혀낼 방침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